

당위서기가 스위스에서 앞장서 탈당하다

[밍후이왕] 스위스 관광지에서 탈당 자원 봉사자 판(潘) 여사는 한 무리 대륙 관광객들에게 미국 하원이 중공(중국공산당)을 상대로 양심수(파룬궁 수련생 포함)에 대한 생체 장기적출을 즉각 중지할 것을 요구하는 343호 결의안을 통과시켰다는 이야기를 전했다. 판 여사는 많은 매체가 중공의 생체 장기적출 죄행을 보도했으며, 파룬궁 수련생의 장기를 생체 적출하라는 명령을 내린 장쩌민(江泽民)은 처벌을 피할 수 없다고 말했다. 관광객들은 이 소식을 듣고 모두 매우 기뻐하면서 일찍부터 장쩌민을 잡아들였어야 했다고 말했다. 판 여사가 물었다. “장쩌민이 보상을 받기 시작했는데 그가 도망갈 수 있었어요?” 관광객들은 모두 말했다. “도망 못 가요. 절대 도망 못 가요!” 판 여사가 다시 물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 중공과 장쩌민이 천벌을 받는 일이 발생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할 건가요?” 관광객들이 의아해하며 말했다. “그게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나요? 우리는 장쩌민이 빨리 법의 심판을 받기를 고대하고, 공산당이 무너지기를 바라는데요.”

판 여사가 말했다. “중공과 장쩌민이 하

에 사무치는 죄를 지었는데 하늘이 재앙을 내리지 않을 수 있었어요? 예를 들어 지진, 수재, 온역 같은 재난을 내려서 많은 사람을 거둬가겠지만, 또 적지 않은 사람을 남겨 둘 텐데, 하늘은 당신이 스스로 어떤 선택을 했는지를 볼 거예요.”

관광객이 급히 물었다. “그럼 어떻게 할지 말씀해 주세요. 어떻게 피하죠?” 판 여사는 그들에게 알려주었다. “‘3퇴(퇴당, 퇴단, 퇴대)’하면 평안을 얻을 수 있어요. 중공의 당, 단, 대 일체 조직에서 탈퇴하고, 중공을 위해 몸을 바치겠다고 한 독한 맹세를 폐기하세요. 겁난이 왔을 때 신불이 당신을 보호해서 홍수도 발발을 돌아가고 온역도 작용을 못 할 거예요. 이런 신적은 동서고금의 역사에 대량으로 기록돼 있어요. 하지만 당신이 만약 사람을 해치는 무신론을 믿고 ‘3퇴’ 보평안을 안 믿는다면, 이진 신불이 당신을 구하기 위해 자비롭게 보내준 기회를 밀어내는 것과 같고, 중공의 순장품으로 중공과 함께 도태될 운명을 선택하는 거예요.”

모두 고개를 끄덕이는 것을 보고 판 여사는 말했다. “제가 여러분에게 가명을 지어 탈당사이트에 ‘3퇴’ 등록을 해 줄 수 있어요.

뭐든 가입했으면 탈퇴하세요.” 그녀는 앞에 서있는 한 남성에게 말했다. “당신은 줄곧 고개를 끄덕였는데, 당신부터 시작해볼까요?” 그가 대답했다. “좋아요. 저는 탈퇴하겠습니다!” 이어 한 무리의 사람이 모두 탈퇴했다. 그들이 판 여사에게 말했다. “맨 처음 탈퇴한 사람은 우리 당위서기예요.” “그가 앞장서 탈퇴하니 좋잖아요.” “그의 태도 덕분에 주저없이 탈퇴했어요.”

판 여사가 당위서기에게 말했다. “그들이 방금 한 말을 모두 들으셨죠? 그들은 당신이 앞장선 걸 진심으로 칭찬했어요! 간부가 먼저 ‘3퇴’하면 인심을 크게 얻고 하늘의 뜻에도 크게 부합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당신은 당위서기로 중공의 정책을 집행하면서 분명히 많은 업을 지었어요. 당신이 앞장서 탈당한 건 공을 세워 속죄하는 좋은 기회였고 현명한 일이었어요. 돌아가셔서 친지와 부하 직원을 모두 ‘3퇴’시켜 그들도 재난을 벗어나 평안과 미래를 얻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만약 정말 그렇게 하신다면 당신의 복덕이 더 커지지 않을까요?” 그는 들으며 머리를 끄덕였고, 어떤 이는 그를 향해 엄지손가락을 들어 올렸다.



유럽의회 청문회, 중공의 생체 장기적출에 주목

[밍후이왕] 2016년 6월 29일, 캐나다 인권변호사 데이비드 메이타스(David Matas), 캐나다 전 아태 담당 국무장관 데이비드 킬고어(David Kilgour), 미국 독립조사기자 에단 구트만(Ethan Gutmann) 등 3명의 독립조사원이 유럽의회의 초청을 받아 청문회에 참석했다. 그들은 중공의 양심수 장기 생체적출에 관한 최신 조사보고서를 제출하고, 중공의 생체 장기적출 저지를 위해 유럽의회가 행동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위 사진)

최신 보고서에는 2000년경 이후 중국 각지의 수백 개에 달하는 병원과 장기이식센터의 운영상황이 상세히 실렸다. 보고서는 중국에서 이뤄진 장기이식 수술의 수량을 매년 6만에서 10만 건 사이로 추산했다.

이번 청문회는 유럽의회 중진의원 루이 미셸(Louis Michel)의 발의로, 중국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파룬궁 수련생 등 양심수 장기 생체적출 범죄에 대한 관심을 모으기 위해 개최됐다. 먼 길을 달려온 독립조사원과 현장의 유럽의회 의원들은 유럽연

합이 행동에 나서 생체 장기적출을 반드시 저지해야 한다며 한 목소리를 냈다.

데이비드 메이타스는 말했다. “이번 최신 조사보고서에서 얻은 최종 결론은 중공이 국가 전체를 대규모 학살에 참여시켰다는 것, 피해자의 대부분이 무고한 파룬궁 수련생이지만, 일부 위구르인, 티베트인과 가톨릭 신도가 포함됐다는 것, 그리고 중공이 이식용 장기를 얻기 위해 이런 일을 벌였다는 것이다.”

에단 구트만은 말했다. “유럽의회는 일찍이 2013년 12월 12일, 파룬궁 수련자 등 양심수에 대한 생체 장기적출 중지를 중공에 요구하는 결의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하지만 유럽의회는 마땅히 한 발 더 나아가 독립적인 조사를 진행해야 한다.”

구트만은 파룬궁 수련생의 장기를 대규모로 생체 적출한 중공의 만행이 집단학살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말했다. “어떤 사람은 나에게 이진 파룬궁에 관한 문제라고 말했다. 아니다. 이진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집단학살 문제이며, 단지 현대적 외투를 걸쳤을 뿐이다.”

국보대대장, 당신은 우리에게 앞길을 가르쳐 줍니다

[밍후이왕] 2015년, 내가 실명으로 최고 검찰원에 장쩌민을 고소한 후 어느 날, 국보대대장이 나에게 전화를 걸어 꼭 한번 만나자고 말했다. 오후에 나는 분국으로 찾아가 국보대대장을 만났다. 그는 장쩌민 고소에 대해서만 잠시 물어보겠다고 거듭 말하면서 내가 쓴 장쩌민 고소 자료도 보았다.

나는 그들에게 파룬궁 진상을 말했다. 마지막에 기록원이 나에게 무슨 요구가 있는지 물었다. 나는 말했다. “아주 명확하게 입건을 요구하는데, 즉시 장쩌민을 법에 따라 처벌하고, 법으로 다스려야 합니다!” 그 말을 듣고 국보대대장의 두 눈썹이 잠깐 떨렸다. 이어서 나는 불법적으로 강탈해간 물건들을 자세히 말하고 배상을 요구했다. 기록하던 국보경찰이 기록을 끝내고 말했다. “(파룬궁) 책이 없으면 한 권 드릴게요.” 그는 곧 나에게 ‘전법륜’(파룬궁의 주요 저서) 새책 한 권을 갖다 주었다. 나는 말했다. “나는 책이 있지만, 당신들 책은 빼앗은 것이니 나한테 주세요.” 기록하던 경찰은 이 책은 자

신이 보는 책이라고 거듭 말하면서 책갈피도 끼어 있다고 말했다. 나는 그럼 놔두고 잘 보라고 말했다. 나는 마지막에 그에게는 ‘싼위안’, 국보대대장에게는 ‘밍즈’라는 가명을 지어 두 사람의 ‘3퇴(퇴당, 퇴단, 퇴대)’를 기록하면서 후에 인터넷에서 ‘3퇴’ 성명을 발표해주겠다고 말했다. 나는 그들에게 진심으로 ‘3퇴’하는지 반복해서 물었다. 그들은 연달아 “진심으로, 진심으로, 완전히 진심으로 탈퇴합니다.”라고 말했다. 떠날 때 나는 말했다. “진심으로 ‘3퇴’하면 목숨을 지킬 수 있고 이래야만 미래를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3퇴’에 그치지 말고 3가지 일도 해야 합니다. 첫째, 스스로 파룬궁 박해에 가담한 일이 잘못된 것이라는 성명을 밍후이왕에 발표해야 합니다. 둘째, 공로를 세워 과오를 메우고 다시는 파룬궁을 박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셋째, 여러분도 장쩌민을 고소해 자신의 죄를 줄여야 합니다.” 국보대대장이 웃으며 말했다. “당신은 또 우리한테 앞길을 가르쳐 주네요!”

중공은 서방에서 온 유령

공산당의 원조 마르크스는 젊은 시절 기독교인으로 하느님을 믿었다. 그러나 그는 대학을 다니는 동안 사탄(Satan) 교회에 가입해 악마교의 신도가 되었다. 사탄은 유대교와 기독교에서 악마의 왕이며, 천사가 타락하여 마귀가 된 것이다. 사탄교는 신을 증오하고 신에 반대하는 사교로, 그 종교의식은 정교와 반대로 행하며 기독교에서 정한 7가지 죄를 범한다. 마르크스도 스스로 사탄과 계약을 맺었다고 승인한 바 있다. 이후 마르크스는 악마의 행위를 대대적으로 자행했다. 노동자는 물론, 공산주의를 위해 싸우는 사람을 포함한 전 인류를 지옥으로 떨어지도록 저주했다. 따라서 마르크스는 무신론자가 전혀 아닌 사탄교(악마)의 신도이다. ‘마르크스주의’는 바로 그가 사탄(악마)교에 가입한 후에 만든 것이다.

마르크스는 공산당의 첫 강령 문서인 ‘공산당 선언’에서 이렇게 선포했다. 1848년, “하나의 유령, 공산주의의 유령이 유럽에서 빈둥거리고 있다.” 공산당의 조상은 시작부터 조금도 거리낌없이 공산당이 사실은 유령임을 밝혔다. 그렇다면 유령은 바로 하늘과 태양을 피해 어두운 곳에 숨어 있는 야비한 영체다. 방대한 공산주의 진영이 해체된 후 공산당이라는 이 유령(사악한 영체, 마귀)은 곧 중화의 대지로 움츠러들었고, 세상에서 표현되는 그의 모습은 바로 중공이라는 사당(邪党) 조직이다.

중공은 중국인을 속여 생명을 마귀에

게 바치게 했다.

전 세계에서 공산당을 제외하고는 가입하는 사람에게 생명을 바치고 영원히 배신하지 않겠다는 선서를 요구하는 두 번째 정당이 없다. 중국 사람들은 중공의 당, 단, 대 조직에 가입할 때 오른손을 들고 공산당을 위해 기꺼이 몸을 바치겠다는 독한 맹세를 한다. 사실 이것은 유령에게 독한 맹세를 하는 것이며, 바로 생명을 마귀 유령에게 바쳐 그것의 노예와 도구가 되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선서는 몸을 파는 계약이며 독한 맹세다. 중국 사람은 예로부터 신을 믿고 하늘을 존경했으며, 맹세는 반드시 실행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하지만 중공 사당(邪党)은 14억 중국인을 속였고, 수많은 중화의 아들딸이 스스로 마귀의 자손이 된다는 것을 전혀 느끼지 못하게 했다.

마래의 자손이 아닌 중화의 아들딸이 되자

‘3퇴’의 큰 물결은 바로 서방에서 온 중공이란 유령을 중국과 중국인의 몸에서 제거하는 것이다. 마래의 자손이 아닌 중화의 아들딸로 되는 것은 모든 중화 자손의 근본적인 바람이다.

중국 동포들이 진상을 깨달아 빨리 ‘3퇴’하고 아름다운 미래를 선택하기를 바란다.

폐암이 저절로 낫다

[대륙 투고] 2014년 가을, 나는 우리 도시의 가장 좋은 병원에서 폐암 치료를 받고 있는 먼 친척에게 병문안을 갔다. 내가 보니 그는 창백하고 아원 얼굴에 광대뼈가 작은 산처럼 튀어나와 있었고, 앙상한 몸을 고통스럽게 웅크리고 침대 위에 누워 있었다. 의사는 그가 이미 폐암 말기로 치료가 안되며 곧 임종을 맞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치료될 가망이 없어보였고 그래서 나는 오직 파룬궁 만이 목숨을 구해줄 수 있다고 그에게 알려주었다. 그는 나에게 말했다. “이렇게 좋은 의료조건으로도 내 병을 못 고치는데 파룬궁으로 될까요?” 말을 마친 그는 슬픔과 절망이 가득한 눈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나는 그에게 말했다. “파룬궁은 불법(佛法)이고, 사람을 구하러 온 건데, 현재 공산당이 파룬궁을 박해하고 있어요. 오직 중공의 당, 단, 대 조직에서 탈퇴(3퇴)하고, 성심으로 ‘파룬파 하오!’(法轮大法好!) ‘쩐, 싼, 런 하오!’(真, 善, 忍 好!)’를 외우기만 하면 희망이 있어요.” 그는 살겠다는 강렬한 욕망으로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다. 그리고 말했다. “나한테는 돈이 있어요. 만일 정말 좋아지면 10만 위안을 드릴게요.” 나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파룬궁은 세인을 구도하는데, 사람의 마음만 보고 돈은 한 푼도 안 받아요.” 그의 몸은 하루가 다르게 좋아졌고,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른 후에 의사가 검사하니 그의 폐암은 저절로 나았고, 신체의 모든 지표가 완전히 정상이었다.

2016년 6월 12일, 나는 자오쥘 지구의 한 광장에서 우연히 그를 만났다. 그는 온 얼굴에 혈색이 돌았고 나는 듯한 걸음으로 나에게 다가왔는데, 완전히 판 사람이 되어 있었다. 그는 기뻐하며 나에게 말했다. “내 몸은 완전한 건강을 회복했어요. 파룬궁은 정말 신기해요. 파룬궁 사부님이 나한테 두 번째 생명을 주셨어요!” 생기 넘치는 그의 모습을 보고 나의 가슴은 기쁨과 안도의 마음으로 벅차올랐다.



2002년 6월 구이저우에서 발견된 ‘장자석’ 단면에 ‘중공공산당망’이란 6개의 큰 글자가 나타나 ‘천멸중공(天滅中共)’이라는 천기(天機)를 알려 주고 있다.